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인디언의 생태철학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박 홍 배

2015년 2월

인디언의 생태철학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윤 용 택

박 홍 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박홍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2월

A Study on American Indian Ecological Philosophy

Pak, Hong Bae

(supervised by Professor Yoon, Yong 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5. 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인디언의 세 이미지	6
1. 야만인으로서 인디언	6
2. 문화인으로서 인디언	9
3. 생태주의자로서 인디언	12
III. 인디언의 유기체적 세계관	16
1. ‘위대한 영’에 대한 믿음	16
2. 신비주의적 체험	18
3. 세계에 대한 전일주의적 관점	21
IV. 인디언의 순환적 자연관	24
1. ‘생명의 그물’에 대한 통찰	24
2. 순환적 생명관	27
3. 자연에 대한 생태주의적 관점	30
V. 인디언의 대아적(大我的) 사회관	33
1. 형제적 평화관	33
2. 전인적 교육관	36
3. 사회에 대한 평등지향적 관점	39

VI. 인디언 생태철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42
1. 전근대성에 대한 논의	42
2. 자연적 삶에 대한 논의	45
3. 접목가능성에 대한 논의	48
VII. 결 론	51
참고문헌	54
국문요약	57
ABSTRACT	59

I. 서론

현대인들은 과학기술문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하게 발전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과학기술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체제와 함께 현대인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자원은 더 빨리 고갈되고 있다.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핵 발전으로 인한 핵폐기물이 쌓이고 방사능과 각종 공해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육체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핵으로 인간의 운명이 불투명해졌고,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미래세대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하려면, 자연을 보전하고 다른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환경문제 역시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으로 보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생태주의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인간과 다른 생명과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 등은 당면한 환경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 환경 보호관리(conservation) 내지 보전(preservation)을 적극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자가 아닌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환경을 보호 관리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간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환경단체들은 늘어나지만 자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렇게 뛰어나게 바뀌지 않고 있다.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까지 자연을 자원으로만 치부하던 인간에게 자연은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를 위한 한 방편으로 현대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디언¹⁾의 생

1)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대륙을 인도로, 그곳의 원주민을 인도사람으로 착각하여 인디언이라 하였다. 그러나 원래 인도(India)에 사는 사람을 인디언(Indian)이라 하기 때문

태철학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인디오(Indio)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럽에서는 그것을 인디엔(Indien), 인디애너(Indiana), 인디언(Indian) 등으로 발음했고, 나중에는 홍인(the red race)이라 부르기도 했다.²⁾ 한때 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인 인디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종족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다시피 했다. 이는 전적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고 개척하면서 인디언 문화를 파괴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문명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던 인디언의 삶과 문화에 대해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비치던 인디언이 오늘날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고상한 문화를 지녔다는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던 인디언의 자연관은 심층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를 비롯한 생태철학에 창의적인 발상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인디언의 생태적 삶과 문화는 과학기술문명에서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인디언은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풍습, 개척자, 탐험가, 선교사, 모피수집가들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들³⁾, 인디언 후예의 기록들⁴⁾, 인디언에 호의적인 이야기들⁵⁾, 인디언 멸망사⁶⁾ 그리

에, 아메리카 원주민인 경우 영국어로는 ‘아메리카 인디언(American Indian)’이라 하고 미국어로는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이라 한다. 그리고 언어권에 따라 앵글로 아메리카의 토착민은 ‘인디언(Indian),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민은 ‘인디오(Indio)라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중심으로 다루되 그들을 ‘인디언’으로 부르기로 한다.

2) 디 브라운,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최준석 옮김, 나무심는사람, 2002, 16쪽.

3)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들은 인디언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들로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W. C. 밴더워스, 『인디언 추장 연설문』, 김문호 역, 그물코, 2004. 류시화 편,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 김영사, 2009.

4) 다음 책들은 인디언 후예들이 쓴 것들로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셉 M. 마셀3세,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 김소향 역, 문학의숲, 2010. 나스디지, 『나의 피는 꿈속을 가로지르는 강물과 같다』, 조병준 옮김, 푸른숲, 2004.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조정숙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2004. 워드 처칠, 『그들이 온 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고 인디언 관련 글을 중심으로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인디언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랐다. 대중에게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콜럼부스가 도착했을 때부터 인디언은 그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문화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인디언은 크게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전형’, ‘강인한 육체를 가진 도덕적 인간의 전형’, ‘오늘날 환경철학에 영감을 주는 생태주의 개척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II장에서는 인디언의 이미지를 세 가지 관점, 즉 야만인으로서 인디언, 문화인으로서 인디언, 생태주의자로서 인디언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인디언들은 우상숭배, 희생제의, 극악무도한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라고 혹평받기도 하고, 미학적, 윤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유럽과는 또 다른 유형의 문화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동식물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같은 자연도 살아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교감한다는 유기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심층생태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인디언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드러내려고 한다.

III장에서는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을 믿으며 살았던 인디언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靈)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세계를 창조할 때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과 예민하게

-
- 5) 다음은 인디언이 아닌 작가들이 인디언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호의적으로 서술한 책들이다.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 삶, 2013. 돈 미겔 루이스, 『네 가지 약속』, 유향란 옮김, 김영사, 2012. 라셀 카르티에 외, 『인디언과 함께 걷기』, 길잡이늬대, 문학의숲, 2010.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머니스트, 2003. 신명섭 엮고 옮김, 『강은 거룩한 기억이 흐른다』, 고인돌, 2010. 몬테릴, 『인디언 최후의 부족』, 정희성 옮김, 아카이브, 2012. 마츠키 타다시, 『힘겨운 삶의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서』, 정택상 옮김, 정한PNP, 2003. 팔리 모앗, 『잊혀진 미래』, 장석봉 옮김, 달팽이출판, 2009. T.C. 맥루한, 『대지와 더불어 : 인디언의 삶의 자화상』, 김은국 역, 범양사, 1983.
- 6) 디 브라운,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최준석 옮김, 한겨레출판, 2011. 햄튼 사이즈, 『피와 천둥의 시대』, 홍한별 옮김, 갈라파고스, 2009. 프레드릭 E. 혹시,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유시주 옮김, 영림카디널, 2000. 엘프리드 W. 크로스비, 『콜럼부스가 바꾼 세계』, 김기운 옮김, 지식의숲, 2006. 로럴드 라이트, 『빠앗긴 대륙, 아메리카』, 안병국 옮김, 이론과실천, 2012. 에드워드 커티스,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주영 옮김, 눈빛출판사, 2011.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관찰하면 초자연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믿으면서 관조와 명상을 통해서 초자연적 신비에 도달하고자 했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우주의 근본원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다. 인디언은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inherent)⁷⁾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 상호존중과 공동체를 이루는 동반자로 규정함으로써 함께 사는 세계를 이루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오늘날 급격하게 파괴되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서 자연의 신성성과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인디언의 순환적인 자연관을 살펴볼 것이다. 인디언들은 모든 존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상호의존적이며, 인간은 거대한 그물의 작은 매듭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위대한 영이 만들어준 자연의 한 가닥을 차지하고 그들과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삶과 죽음은 서로 이어지며 순환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존재는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산, 물, 돌 등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대지를 파헤치거나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V장에서는 인디언의 대아적(大我的) 사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대아(大我, Self)’라 함은 에고(ego)나 개체(individuals)로서의 소아(小我, self)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었다는 감정을 가진 자아를 말한다.⁸⁾ 인디언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노예나 계급도 인정하지 않고 빈부의 차별이 없었으며,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과부를 먼저 돌보는 사회윤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사람이 되는 철학, 사냥꾼이 되는 철학, 전사가 되는 철학을 가르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서로 나누는 경제

7) 여기서 내재적 가치란 어떤 대상이 다른 용도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J. R. 데자르맹,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220쪽 참조.

8) 심층생태주의 주창자인 아르네 네스(Arne Dekke Naess)는 자아(自我, self)를 에고(ego) 내지는 개체(individuals)로 파악하는 소아(小我, self)와 ‘자신’을 시공간적으로 보다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었다고 파악하는 ‘대아(大我, Self)’로 구분하고 있다. B. Devall & G. Sessions,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2007, 76쪽 참조.

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V장에서는 인디언이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와 빈부의 차이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이루었나를 살펴볼 것이다.

VI장에서는 전근대적 인디언의 정신문화와 현대의 물질적 문명을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최첨단 과학기술문명의 시대에 전근대적인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인디언이 자연에 존경과 경외심을 보였던 것은 자연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초자연적 힘을 믿고 살아남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폄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대사회에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류 역사가 반드시 진보의 역사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오늘날 파괴된 환경과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⁹⁾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라다크와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¹⁰⁾이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거의 소멸되었지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며 생태적 삶을 살았던 인디언의 삶과 문화도 역시 어둡고 불안한 인류 미래에 대한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이 책은 언어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헬레나 호지가 1975년 인도 북부 작은 마을 라다크에 들어갔다가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지혜를 통해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오다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1999 참조.

10) 사이토 도시야, 오히라 미치요,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홍성민 옮김, 공명, 2012 참조. 이 책은 전 국민의 97퍼센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탄 사회를 분석한 책이다.

II. 인디언의 세 이미지

1. 야만인으로서 인디언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인디언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때는 인디언을 짐승이나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는가 하면, 문명에 때 묻지 않은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았다.¹¹⁾ 이를테면 데 오비에도(G. F. de Oviedo)는 “인디언은 비록 이성적이고 또 신성한 노아의 방주 후손이기는 하나, 우상 숭배, 희생제의, 극악무도한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금수와 같다”¹²⁾고 평하고 있다.

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위해 도착한 유럽인에게 그 곳은 황량한 곳이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브래드포드(W. Bradford)는 그 곳을 ‘음험하고 삭막한 황야’라고 표현하였고 위글즈워스(M. Wigglesworth)는 그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버려진 황량한 황야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지옥의 마귀들과 야만인들이
악마를 경배하고 있었다.¹³⁾

1940년대 인류학자 홀름버그(A. Holmberg)는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베니 지역의 시리오노족 사회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인디언들의 삶을 조사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오노족은 예술, 종교, 문화가 전무한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전형”¹⁴⁾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시리오노족의 예술, 영적인 종교, 자연

11)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35쪽.

12) 엔리케 두셀, 『타자의 은폐』, 박병규 역, 그린비출판사, 2011, 49쪽.

13) J. 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1999, 255쪽에서 재인용.

14)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역, 오래된미래, 2005, 17쪽.

친화적 문화의 역사를 연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450년 전부터 아메리카에 불어 닦친 허리케인이 지나간 황량한 흔적을 보고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인디언의 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고상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백인과 정부군에 쫓기어 몇 명 남지 않은 시리오노족을 만나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인디언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갓 건너온 청교도들에게 식량과 종자를 나누어 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인디언의 비축된 식량과 땅을 탐내기 시작했다. 미국인이 흔히 내세우는 개척정신, 즉 프런티어 정신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프런티어 정신은 백인 입장에서는 모험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진취적인 이념이었지만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땅과 목숨을 빼앗는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인디언이 유럽인보다 자연과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지브와족 인디언을 연구한 한 학자는 “옛날 인디언은 짐승을 멸종하다시피 했고, 최근에는 인디언 거주지역에 맥주캔이나 고장난 자동차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린다”¹⁵⁾고 비판하고, 인디언과 가깝게 지냈던 상인, 선교사, 개척자들이 남긴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인디언은 불을 질러 짐승을 몰살시키거나 짐승을 절벽 아래로 몰아붙여 살해했고, 잡은 짐승은 필요한 부위만 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린다고¹⁶⁾ 비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인디언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성격이 있다. 그들은 ‘목동의 눈’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정의 눈’으로 보았다”¹⁷⁾고 비난하기도 한다.

한편 인디언의 무지는 짐승들을 대량학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짐승을 통한 전염병이 번지면서 인디언 샤만들조차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인디언들 사이에 짐승들이 인간을 몰살시키려 한다는 이른바 ‘음모설’까지 나돌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모피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인디언은 또 다시 짐승들을 대량학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짐승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¹⁸⁾

15)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38쪽.

16) 위의 논문, 39쪽에서 재인용.

17) 같은 곳 참조.

18) 같은 곳 참조.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인디언이 생명의경사상을 가진 것도 결국 무지의 소치라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허치슨(W. H. Hutchinson)은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인디언이 자연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꼈던 것은 자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만큼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인과 비교해서 유난히 의식과 제의 그리고 금기가 발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을 달래어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¹⁹⁾ 그 관점에 따르면 자연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꼈던 것은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유럽인은 유순한 인디언을 나태하고 미개한 종족이라 폄하하며 자신들의 우월한 생활방식을 강요하고 그들의 땅을 요구했다. 군대를 동원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디언 부족을 학살했고 사기와 뇌물로 그들을 분열시키고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파기하면서 인디언의 땅을 차지했다. 그들의 싸움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러한 1870년대에 북아메리카 인디언 수우족의 성지인 ‘파하 사파’, 즉 검은 언덕(Blackhill)에서 금이 발견되자 백인들은 그 지역을 손에 넣으려고 하였다.²⁰⁾ 인디언에게 있어 세계의 중심지이고, 위대한 영과 만나 투시력을 얻는 성스러운 곳으로 수우족의 정신적 고향이던 검은 언덕에서 백인과 인디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인디언들은 정신적인 고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몽테뉴는 인디언을 야만인으로 부르는 편견에 반대했다.

교통수단도 없고, 문자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숫자에 대한 이해도 없다. 경찰이나 정치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부와 가난의 차별도 없다. 계약도 없고, 왕위 계승도 없으며, 경계선도 없다. 직업도 없이 한가하며, 옷도 걸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다. 땅을 갈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들 사회에는 거짓, 허위, 배신, 탐욕, 시기,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쾌적하고 온화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들 중에는 병든 육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하루 종일 춤추면서 보낸다. 젊은이들은 활과 화살을 둘러메고 들짐승을 사냥하러 나가

19) 김육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40쪽 재인용.

20)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머니스트, 2003, 12쪽.

고, 여인들은 나뭇대로 바쁘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애 근거해 그들을 야만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만성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훨씬 능가한다.²¹⁾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문명의 측면에서 볼 때 인디언들은 미개한 야만인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과학기술,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는 경제체제, 개인주의를 강화하는 정치체제 등은 환경문제와 공동체 파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인디언의 문화도 유럽문명과과는 또 다른 문화로 볼 수도 있다.

2. 문화인으로서 인디언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인디언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적 자연 질서와 조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 현대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온전한 삶은 자연과 상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한 니콜(C. A. Nicole)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배출해 왔던 문명을 우리가 파괴한 것은 아닌가 두렵다”²²⁾고 말하고, 휴이트(E. L. Hewett)는 인디언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인디언은 우리들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만들었다. 단지 그들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이다. 미학적 측면, 윤리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인디언은 정복자들보다 앞서 있었다. 인디언이 유럽의 정부 형태와는 전혀 다르면서 훨씬 효율적인 조직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일이다. 종족의 복지가 그들 조직의 최고 목적이었다.²³⁾

21)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254쪽 재인용.

22)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90쪽에서 재인용.

23) 위의 책, 89쪽 재인용.

아메리카 원주민을 처음 본 유럽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콜럼버스는 “이들은 아주 평화롭게 사는 백성입니다. 전하께 맹세하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나은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말은 부드럽고 상냥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예절바르고 훌륭합니다”²⁴⁾라는 편지를 스페인 국왕에게 보냈다. 그리고 1530년대에 인디언에 대한 최초의 인류학 보고서를 썼던 라스 카사스(B. de Las Casas)는 “인디언은 지상낙원 속에서 암소들처럼 온화하게 살던 꾸밈없는 존재들이었다”²⁵⁾고 평했고, 동시대의 이탈리아 성서 주석자인 앙기에라(P. M. de Anghiera)도 “인디언은 옛 작가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황금빛 세상에 산다. 그들은 어떤 법의 강요도 없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존재할 뿐이다”²⁶⁾라고 했다. 이처럼 인디언은 풍요로운 자연에서 혜택을 누리며 셀 수 없이 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자급자족하면서 드넓은 땅에 흩어져 평화롭게 살았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수천 년 동안 다른 문화와 교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해 왔다. 마야, 아스텍, 잉카문명으로 발전한 인디언의 생각과 꿈 그리고 종교와 철학,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실로 무한한 것이었다. 인디언 문화가 갖는 사회적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특히 중앙아메리카 인디언은 세계인의 식량인 옥수수를 발견했고, 감자, 토마토, 후추, 호박, 콩 등을 경작함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재배되는 곡물의 5분의 3을 개발했다.²⁷⁾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교적 짧은 1천 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자체문자, 천문학과 수학을 만들어 냈고, 인도보다 1세기나 앞서 0을 발명했다.²⁸⁾ 그러나 그러한 라틴아메리카 인디언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에 의해 단절되었다.

인디언은 고귀한 영성과 강인한 육체를 지닐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수준의 강인함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기르기 위해 단식하고, 달리기와 수영을 하고 증기욕을 통해 피로를 회복한다.²⁹⁾ 특히 발 빠른 짐승 사냥은 민첩함이

24) 디 브라운,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최준석 옮김, 나무심는사람, 2002, 16쪽.

25)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23쪽.

26) 같은 쪽.

27) 라셀 카르티에 외, 『인디언과 함께 걷기』, 길잡이늬대, 문학의숲, 2010, 313쪽.

28) 제이콥 브로노프스키, 『인간등정의 발자취』, 김은국·김현숙 옮김, 바다출판사, 2009, 202쪽.

29)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101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인한 육체는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강인한 육체는 어느 시대에나 지덕체(智德體)를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디언은 다양한 언어, 정치·경제제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인디언은 여러 부족 간에 긴밀히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들은 부족 간에 상품 교역과 자원, 혼인, 노동력, 지식, 기술, 종교적 관습 등도 교환했다.³⁰⁾ 그러기에 부족 내의 구성원은 물론 서로 다른 부족들 간에도 서로 차별이 없었다. 그러한 문화에 젖은 인디언은 인간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는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M. de Montaigne)가 인디언을 평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프랑스를 방문한 인디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온갖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데 한편 또 다른 절반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야윈 채 그들의 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또한 인디언들은 사람들 절반이 가난으로 고통 받고, 또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토록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거나 집에 불을 지르지도 않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³¹⁾

그리고 빈부차가 뚜렷한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들 간에 평등한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이른바 문명인이라 자처하는 유럽인들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했다. 이러한 견해는 17세기 말에 캐나다를 방문했던 프랑스 탐험가 롬다르세(L. A. de Lom d'Arce)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인디언들은 우리 유럽인들을 노예에 불과하며, 비참한 영혼이고,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의견을 말할 가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에게 복종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인디언들 각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인이며, 인간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서로 간에 차별이나 우월성은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³²⁾

30) 프레드릭 E. 흑시,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유시주 옮김, 영림카디널, 2000, 73쪽.

31)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484쪽 참조.

32) 같은 곳.

16, 17 세기의 유럽 사회와 인디언 사회를 놓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어렵다. 하지만 휴이트(E. L. Hewett)의 “인디언이 우리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만들었다. 단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 미학적, 윤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인디언은 정복자들보다 앞서 있었다”³³⁾는 증언은 적어도 인디언이 야만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메리카 인디언은 유럽과는 또 다른 유형의 문화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디언의 정신문화에서 물질문명에 젖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생태주의자로서 인디언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먹이 사슬’ 관계를 넘어서 ‘생명의 그물’ 관계를 이룬다. 생태주의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태적 원리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카프라(F. Capra)는 생태학의 원리를 관계성(networks), 순환성(cycles), 태양에너지, 상호의존성(partnership), 다양성(diversity),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등으로 파악한다.³⁴⁾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영양분을 취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폐기물은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와 영양분이 되어 상부상조한다. 그리고 생태계는 생물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 복원력도 커지며, 각 요소들 사이에 어느 하나가 극대화되는 일이 없이 역동적 균형을 취한다는 것이다. 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생태학의 원리를 이해하여 삶과 제도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인디언 역시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존재한다는 생태학 원리를 지키면서 살았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등적 사고를 통해서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또한 생명체의 죽음은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는 순환적 사고로 생태계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도 살아있고, 서로

33)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89쪽 재인용.

34) F. Capra, *The Hidden Connections*, New York, Doubleday, 2002, 231쪽.

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감한다는 유기체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듯 인디언들은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생태주의의 원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인디언의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생태적 의식을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³⁵⁾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은 20세기 초 레오폴드(A. Leopold)의 대지의 윤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고, 윤리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흙, 물, 식물, 동물 등 한 마디로 대지 전체에까지 확대시킬 것을 주장한다.³⁶⁾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자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인간생명 못지않게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을 신성하다고 본다. 것처럼 대지, 지구, 자연을 신성한 존재로 경배하고, 돌보는 생태적인 영적 전통은 기독교, 도교, 불교, 인디언의 의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⁷⁾

우덜(S. L. Udall)이 인디언을 “20세기 생태주의 개척자”라고 한 이후 환경운동가들은 인디언을 ‘최초의 생태주의자들’이라 부르며, “생태학적 인디언”(ecological Indians)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³⁸⁾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문명화되고 발전된 사회로 생각하지만 인디언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대지와 더불어 사는 지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인디언 연구가인 터너 3세(F. W. Turner III)는 “인디언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약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³⁹⁾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은 인디언의 생활방식과 자연관에서 오늘날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35)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Salt Lake City, 66쪽.

36) 알도 레오폴드, 『모래땅의 사계』, 윤여창·이상원 옮김, 푸른숲, 247쪽 참조

37)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Salt Lake City, 66쪽.

38)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37쪽 참조.

39)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67-68쪽 참조.

인디언으로 처음 풀리처상을 받은 소설가 모머데이(N. S. Momaday)는 “인디언에게 땅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미국은 환경으로부터 재앙을 맞게 될 것”⁴⁰⁾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수우족 인디언인 델로리아(V. Deloria)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인디언들의 생존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 백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인디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⁴¹⁾고 주장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디언의 생태주의적 문화에 호의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들의 생태적 문화가 사라진 지금, 망각된 인디언의 정신과 문화를 되새김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가는 현대과학기술 문명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연구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인디언을 연구한 인종학자는 그들에게 ‘생태학적 인디언’이란 말은 허구적인 신화로 문학가들의 감상이나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미국서부 개척사를 연구한 역사가 허치슨(W. H. Hutchinson)은 ‘생태학적 양심’으로 보는 학자는 학구적이라기보다 다분히 낭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인디언이 자연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의식과 금기가 발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⁴²⁾

현대인들은 과학문명 덕분에 풍요롭게 되었고 그 풍요는 인간 자신을 망각하게 하였다. 현대인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도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에 대한 경탄 혹은 외경의 기분이 있었고, 17세기 이래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확실성이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획과 실천에 의해서 지상천국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존재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유태인 학살과 원자폭탄의 재난을 겪고 나서부터 공포와 권태의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⁴³⁾

그 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연을 경외하면서 생태

40)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38쪽 재인용.

41) 같은 곳.

42) 같은 논문, 40쪽.

43) 김종철,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녹색평론선집1』, 녹색평론사, 2005, 68쪽 참조.

학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인디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갖는 것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Ⅲ. 인디언의 유기체적 세계관

1. ‘위대한 영’에 대한 믿음

인디언은 일생을 자연 속에서 모든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의 행로는 풍경처럼 우주의 질서 중에 한 줄기를 이룬다. 그들은 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순결한 언행과 은밀한 명상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열려있는 영혼에게 그가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우리는 인디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인디언의 삶과 정신을 알았던 사람들의 기록 등을 통해 매우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물을 동등한 그리고 불가결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라코타족 인디언은 모든 존재에 ‘와칸 탄카(Wakan Tanka)’의 영이 들어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와칸(Wakan)’은 라코타어로 ‘불가사의’, ‘영’을 의미하고 ‘탄카(Tanka)’는 ‘매우 큰 것’을 뜻한다. 따라서 ‘와칸 탄카’는 ‘위대한 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영어로 ‘Great Spirit’이라고 번역된다.⁴⁴⁾ ‘와칸 탄카’, 즉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신이다. ‘와칸 탄카’ 밑에는 ‘툰칸(Tunkan)’과 같은 하위 신들이 존재하고, 그 하위 신들 아래에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같이 ‘와칸 탄카’ 속에 통합된다.⁴⁵⁾ 말하자면 모든 존재는 ‘와칸 탄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작지도 그렇게 소홀하지도 않고 ‘와칸 탄카’가 주신 영혼을 지니고 있다. 툰칸은 흔히 돌의 신으로 일컬을 수 있는 신이지만 ‘위대한 영혼’의 일부이기도 하다. 신들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와칸 탄카’ 속에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테면 삼위일체와 같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원 속의 원’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

44) 마츠키 타다시, 『힘겨운 삶의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서』, 정택상 옮김, 도서출판정환PNP, 2004, 20 쪽 참조.

45)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45-46 쪽 참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영혼은 돌, 나무, 심지어는 작은 벌레 속에 나뉘어져 그의 존재에 의하여 모든 것을 ‘와칸’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주를 구성하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그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의 ‘할아버지 영혼’에 통합되는 것이다.⁴⁶⁾

기독교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듯이, 인디언은 태초에 ‘와칸 탄카’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와칸 탄카’, 즉 ‘위대한 영’이 산을 쌓아올리고 호수를 만들고 강줄기를 뚫고 숲을 만든 다음 물고기, 곤충, 파충류, 조류, 짐승 그리고 인간이 ‘위대한 영’의 숨결을 받아 태어났다. 따라서 인디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위대한 영’에 의해 만들어진 자녀들이다.⁴⁷⁾

인디언은 부족에 따라 ‘위대한 영’을 ‘오렌다(Orenda)’, ‘마니토(Maginito)’, ‘와콘다(Wakonda)’, ‘오렐비스(Orelbis)’, ‘아그리스쿠(Agriskoue)’, ‘마오나(Maona)’, ‘아오나 윌로나(Awonawilona)’ 등으로 부르며 어떤 때는 인격적 신으로 어떤 때는 비인격적인 영으로 공경한다.⁴⁸⁾ 인디언에게 위대한 영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며 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이며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인디언은 모든 존재에 들어 있는 ‘위대한 영’에게 기도한다.

인디언은 자신들이 항상 ‘위대한 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위대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과 진리 속에서 현재하는 존재로서 숭배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이며 자신의 피조물과의 교감을 통해 발현되는 존재이다.⁴⁹⁾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징물이나 우상에게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다른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위대한 영에게 직접 호소한다. 고행과 금식과 고독한 밤샘기도를 하다보면, 위대한 영은 때때로 동물과 새, 구름과 비, 사람과 사물을 통해 영감을 주거나 몸소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다.⁵⁰⁾

인디언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이므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는다. 그들은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다음 세상에서 어떤 삶이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 그가 한 행위에 따라 태어날 것이라 믿기

46) 같은 곳.

47)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 삶, 2013, 149쪽.

48) 위의 책, 26쪽.

49) 위의 책, 22쪽.

50) 위의 책, 36쪽.

때문에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⁵¹⁾

2. 신비주의적 체험

인디언들은 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과 예민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관찰하면 초자연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위대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보려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의 체력에 따라 며칠씩 금식을 하기도 했다. 마음을 정화하면 정신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디언과 유럽의 신비주의를 비교 연구한 리(D. Lee)에 의하면, 유럽의 전통 속에서는 신비주의가 단지 소수만이 애써 성취하는 경험인데 비하여 인디언에게 신비주의는 습관화된 생활 자체가 그러함으로 이미 주어진 경험이다.⁵²⁾ 그리고 알렌(P. Allen) 역시 북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신비주의 경험은 소수가 가지는 요가처럼 희귀한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한다.⁵³⁾ 기계론적 합리적 삶의 방식은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되는 대상이 연구실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만 인디언의 삶의 방식은 나와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늘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직접 교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 본다면 현대인들의 분석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신비주의라 부를 수 있다.

인디언의 삶은 나와 세계의 만남 속에서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윤리 역시 직관과 신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⁵⁴⁾ 인디언의 종교의식 중에 첫 함비데이(hambeday)⁵⁵⁾는 젊은이에게 중요한 행사이다. 젊은이들은 땀목욕으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일출과 일몰 시간

51) 위의 책, 37쪽.

52) 박창길, 「북미 원주민의 환경사상」, 『민족문화논총』 2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357쪽에서 재인용.

53) 같은 곳.

54) 위의 책, 364쪽.

55) 일종의 수련회로서 함비데이(hambeday)는 인디언 젊은이의 삶에서 중요한 의식이다. 이 의례는 불교의 하한거와 동안거에 비견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44쪽.

이 되면 위대한 영이 이루어 놓은 대지를 바라보며 ‘거대한 신비’와 마주하면서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⁵⁶⁾ 인디언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초월주의적 생각을 가진 소로우(H. D. Thoreau)는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통해 더 깊은 실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활동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야생이야말로 초월적(transcendent) 실재의 가장 믿을 만한 형태이다. 야생은 신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다. 야생은 문명의 타락한 영향으로부터 최후의 피신처이다. 그래서 야생은 최고의 진리와 영적 탁월함을 가장 깊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다.”⁵⁷⁾ 소로우는 실제로 월든 호숫가에 칩거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견과 기만으로부터 벗어나 실재에 도달하는 경험을 했다.

자연을 자원으로 보고 과학적, 분석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전통에서는 신비적 사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 인디언은 처음부터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과 소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 일어난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던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들이 충만해 있다고 말해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이들에게 닦칠 것이다. 그들이 땅에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거미줄에 행한 일은 곧 자신에게 행한 일과 다른 것이 아니다.⁵⁸⁾

56) 같은 곳.

57) J. 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259쪽에서 재인용.

58) 김종철 옮김, 「시에틀 추장의 연설-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녹색평론』 창간호, 녹색평론사, 1991년 11-12월호.

전일주의(全一主義, holism)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의 그물 내지는 인과의 관계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만, 개체주의(individualism)에서는 나와 너, 인간과 자연,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모든 존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개체와 전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전일주의적 입장은 합리적인 이해보다는 직관적인 통찰을 강조한다.

성인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신학과 성경에서 알게 된 것을 나는 숲과 들에서 배웠다. 너도밤나무와 떡갈나무가 내 스승이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책보다 숲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무와 돌이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르쳐줄 것이다”⁵⁹⁾라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은 많은 것을 감추고 쉽게 드러내지 않고, 위대한 영 역시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서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자연과 위대한 영의 가르침은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고 경배하며 한 몸이 되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조와 명상을 통해서 그것은 드러난다. 성인 베르나르가 말했듯이 “궁극적인 진리는 지성의 한계를 벗어난다. 머리가 아닌 정신을 위한 것이요, 설명이 아닌 의미를 찾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⁶⁰⁾ 성인 베르나르도 자연에서 관조와 명상을 통하여 신비의 세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태도는 수우족 인디언의 기도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람결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세상 만물은 당신의 숨결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내 귀를 예민하게 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깨닫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

59)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58쪽에서 재인용.

60) 같은 책, 62쪽 재인용.

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소서. 그리하여 저 노을이 지듯 내 몸이 으스러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61)

오늘날 유기체적 세계관은 세계를 분리된 무수한 객체로 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역동적인 관계의 그물이며, 그 그물 속에는 관찰하는 인간의 의식까지도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인디언들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유기체적 세계관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세계에 대한 전일주의적 관점

인디언에게 정신과 물질은 하나이며 성(聖)과 속(俗)은 하나였다. 그들에게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은 사원이나 성소는 따로 없다. 그들은 모든 존재에 영이 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특별히 의식을 치르는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고 미개한 것은 아니다. 인디언에게 굳이 사원이 있다면 자연이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부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전탐구와 깨어있는 명상, 일상의 기도,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침묵, 의례,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근원을 찾으려 노력했다. 인디언 최초의 의사였던 오히예사(Ohiyesa)는 명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들은 명상에 대해 말하지만 어두운 방안에 앉아서 단순히 눈을 감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상은 자연에서 무엇을 취할 때마다 그것이 음식이든, 공기가든, 그 무엇이든 그 답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명상은 깨어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언제나 대지 위에 서 있으며 진정한 세계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출발이다. 바로 그때 당신은 작은 자아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62)

61)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머니스트, 2003, 책머리에서 재인용.

이처럼 인디언은 고대 인도의 단련법인 요가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일상적 삶 속에서 명상이 이루어진다.

많은 현대인들이 개체론적이고 원자론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생명을 중시하며 전일주의적 우주론(holistic cosmology)과 장이론적(field theory) 존재론에 근거한 새로운 유기적인 세계관이 싹트고 있다. 안건훈은 장이론적 존재론의 형성은 과학적인 세계상에 큰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⁶³⁾ 물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場, field)의 상태로 존재한다. 인간이란 유기체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파악할 수 없고 자연세계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인디언의 자연관은 현대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은 단지 영양적 영혼만 있고, 동물은 영양 이외에도 식욕의 능력을 가지며, 인간은 영양과 식욕 이외에 사고의 능력을 보유한다⁶⁴⁾”고 말한 이후 서양철학에서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분리시켜 왔다. 더구나 현대인은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가 적어졌다. 따라서 현대인은 인디언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은 자연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연을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믿었다. 그들은 다른 생명체와 무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주목하는 세계(watchful world)’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숲을 걸어갈 때도 아무도 없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하는 일을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을 속일 수가 없다.⁶⁵⁾

62) 박미화, 김기대, 「생태주의 환경관의 재구성을 통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분석과 환경교육적 시사점」, 『환경교육』 22권 3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09, 58쪽 재인용.

63) 안건훈, 「아메리카 인디언의 환경윤리」, 『철학』 57집, 한국철학회, 1998, 341쪽.

64) J. 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1999, 50쪽 재인용.

65) 박창길, 「북미 원주민의 환경사상」, 『민족문화논총』 2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347쪽 참조.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자연과 도덕적 관계 그리고 응징이 서로 긴밀히 결부된다. 즉 세계가 도덕적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연이 가진 도덕성을 훼손하면 자연이 보복한다. 모든 형태의 생명들이 인간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신비하고 더 성스럽고 힘의 근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실천과 책임의식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들에게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성스러움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한 예로 아이가 잘못해서 다람쥐를 죽였을 때 어른이 아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다람쥐에게 사과를 한다.⁶⁶⁾ 이러한 태도는 현대인들의 생명에 대한 생각과 크게 대비가 된다. 현대인들은 다른 생명을 자원이나 유희 대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같은 인간까지도 도구로써 바라보며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디언은 무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동등하며 ‘주목하는 세계’로 보고 성스러움이 있다고 믿어 형제자매로까지 관계를 맺는다. 자연과 인간의 정신 사이에 억압적인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통해서 동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우주의 근본 원리는 오직 하나이고, 모든 존재는 하나의 원 위에서 조화를 이루며 생명은 평등하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에는 영혼이 들어 있으며 생의 의욕을 가지고 어머니 대지에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내재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생태계는 역동적인 그물이며, 박테리아로부터 동식물은 물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체를 통합된 전체로 보는 전일주의적 세계관(holistic world view)은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상호존중과 공동체를 이루는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인디언의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66) 위의 논문, 352쪽.

IV. 인디언의 순환적 자연관

1. '생명의 그물'에 대한 통찰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무기물과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어떤 생명체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상호 의존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그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먹이사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생명체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만물은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인디언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의 작은 매듭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지배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경쟁보다는 공생을 강조하였으며,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며 인간은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은 시애틀 추장의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우리 홍인들의 어머니 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거미줄에 행한 일은 곧 자신에게 행한 일과 다른 것이 아니다.⁶⁷⁾

인디언은 위대한 영이 만들어준 자연의 한 가닥을 차지하고 그들과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자연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을 순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혜를 넓

67) 김종철 옮김, 「시애틀 추장의 연설-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녹색평론』 창간호, 녹색평론사, 1991년 11-12월호, 60쪽.

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타다시(M. Tadaschi)는 “자연의 대지에 누워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짙은 녹음 속에서 향기를 맡으며 생명을 지닌 숲과 공감할 때 모든 이어짐 속에 나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들이 이룩한 과학기술문명과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에 펼쳐진 숲과 새와 들짐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의 시간을 떠나 현대라는 시간 속에 고립된 존재로 살고 있다”⁶⁸⁾고 하였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 이외의 존재는 나를 위한 존재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코타족 인디언은 “하우 메타쿠에아야시(Hau Metakuyeayasi)!”라고 인사한다. 이는 ‘안녕, 나의 친척들’이란 뜻이다. 원래 ‘친척(kinfolks)’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⁶⁹⁾ 그러나 인디언에게 친척관계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의 친척관계를 광의로 해석하면 모든 존재와의 관계로 확대된다.

나는 라코타족 사람들이 ‘메타쿠에아야시’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일가친척과 조상들, 장차 태어날 자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런 친척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온 인류가 포함되며,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땅과 머리 위의 하늘, 햇빛, 바닷물, 호수와 하천, 들 그리고 온갖 식물들과 네발달린 짐승, 새, 물고기와 벌레들이 모두 포함된다. 라코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친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라코타족 개념이 뜻하는 것은 만물을, 모든 존재를 단일한 쌍방향 유기체의 능동적이고도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는 전체적 관계로서의 우주관이다. 각 부분의 기능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전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반면에 전체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⁷⁰⁾

모든 존재는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부분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전체적 관계를 이해하고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68) 마츠키 타다시, 『힘겨운 삶의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서』, 정택상 옮김, 정한PNP, 2004, 45쪽.

69)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듯했던 날들』, 조경숙 역, 아름다드리미디어, 1996, 68쪽 참조.

70) 워드 처칠, 『그들이 온 이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313쪽.

한다. 각 부분의 기능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전체를 알 수 없으며, 반면에 전체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으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는 서로 공생과 상생의 관계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디언은 자연의 풍성함 속에 살았지만 허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양의 열매만 따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했다. 그들은 사냥감을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⁷¹⁾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은 7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자원을 보전하는데 모든 지혜를 기울였다. “거북이섬 인디언들은 거북이 섬에서 약초를 캐 때 먼저 그 약초의 추장인 그 지역의 가장 큰 약초에게 선물을 바치고 허락을 구했다. 허락을 받는다 해도 처음 발견하는 일곱 개의 약초는 손대지 않았다. 약초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7세대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인디언들이 ‘생명의 그물’을 단순히 공간적 의미에서만 쓴 게 아니라 시간적 의미에서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그물은 만물이라는 공간 속에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넘어서 7세대라는 시간 속에서 짜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한 공간과 시간 속에 짜이는 생명의 그물의 한 매듭일 뿐이다.

인디언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환경파괴에 대한 생태학적 논의를 하는 학자들은 문제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생태학에서는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물질적으로 보거나 기껏해야 유기적 생명들로만 본다. 이는 자연 내지는 만물을 영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의 그물을 찢는 모든 존재들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의 작은 매듭에 불과하며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고, 그들 모두는 동등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그물의 터전인 대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였다.

땅을 파서 돌을 파내는 것은 내 어머니의 피부를 벗기고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후에 누구의 가슴에 안겨 쉴 수 있으며 누구의 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

71)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30쪽.

가. 인디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족과 함께 이곳에서 오래도록 평화롭게 머물기를 바랄 뿐이다.⁷²⁾

그러한 인디언의 반문명적인 사고에 대해 그들도 오늘날처럼 인구가 팽창하였다면 그러한 사고가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남는다. 인구증가가 자원고갈을 촉진시키고 자원부족상태에 이르면 과학기술에 의한 자연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형태와 관련지어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2. 순환적 생명관

생명의 그물 속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나 사체를 먹이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 없이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다.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이 순환에 따르고 걸핍되면 죽음에 이르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먹이사슬은 먹고 먹히는 생명의 연결고리이고 자연의 순리이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먹이사슬에 대하여 고민한다.

존재는 존재를 희생시키고 존재는 존재를 파괴한다. 생의 의욕은 생의 의욕에 대하여 배격할 뿐만 아니라 생의 의욕은 생의 의욕에 대하여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의 의욕은 다른 생의 의욕을 이해하려 한다. [...] 창조적인 의욕이 파괴적인 의욕으로도 되고 파괴적인 의욕이 창조적인 의욕으로도 된다.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 생명 존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만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남을 뿐이다.⁷³⁾

모든 존재는 생명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은 생존을 위한 동물 사냥이라 하더라도 동물을 죽이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

72)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7쪽 재인용.

73)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김석목 역, 슈바이처 전집3, 경지사, 1965, 356쪽.

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냥은 신성한 것이며, 동물과 사냥꾼은 형제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인디언은 생명의 그물과 먹이사슬 관계 속의 희생물들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표한다. 인디언은 희생 동물을 먹기 전에 일부분을 불 속에 넣는다. 그것들은 연기를 타고 올라가 동물의 영혼에게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두 세계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생겨난다. 그들은 사냥터에서 돌아온 뒤에도 사냥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식을 치른다.

너를 죽여야 해서 미안하다. 형제여.
그러나 나는 너의 고기가 필요했다.
내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형제여.
너의 용기와 힘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한다.
자, 여기 나무 위에 너의 뺨을 달아주마.
그리고 붉은 장식을 해 주노라.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영혼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⁷⁴⁾

이처럼 인디언들은 동식물은 물론 자연까지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사물을 형제처럼 대하며 살았다. 인디언들은 자연과의 소통에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의 순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식을 통해서 제물은 바치고 존경심을 나타낸다.

박창길은 그의 논문에서 “인디언들에게 자연은 자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됨의 근원이다. 자연은 자원(resource)이 아니라 근원(source)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⁷⁵⁾고 한다. 모든 생명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디언들은 모든 생명이 곧 자신들의 형제자매라는 믿음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맞도록 살았다. ‘하우 메타쿠에아야시(Hau Metakuyeayasi)’라는 말의 뜻에서 보았듯이 인디언은 이 단순한 표현 속에 그들의 세계관과 생활방식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다.

인디언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의 그물 속의 한 매듭으로 생각하면

74)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 삶, 2013, 157쪽.

75) 박창길, 「북미 원주민의 환경사상」, 『민족문화논총』 2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345쪽.

서, 동시에 원 위의 존재로 파악한다. “원은 처음과 끝이 없고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생명을 가진 존재보다 더 위에 있거나 더 아래에 있지 않다. 이 진리를 더 확고히 말하자면 탄생과 죽음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평등함 그 자체이다.”⁷⁶⁾ 그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원 위에서 저마다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의 모든 행위는 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디언은 시간 역시 원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시간을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되풀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돌고 도는 원으로 보았다. 시간을 직선으로 본다면 미지의 세계, 즉 불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지만, 시간을 원으로 보게 되면 늘 친숙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직선은 끝이 없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지만 원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원에서 평등을 배우고, 시간의 순환에서 인내를 배운 라코타족 인디언들은 순환하는 삶을 이상으로 생각했다.

원은 라코타 정신의 토대로서 아주 적합하다. 사실 원은 삶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원이 ‘주기’라는 말로 변하면서 원의 물리적 본질이 다소 추상적이게 되었다. 하루의 주기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새벽, 낮, 황혼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해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로 온다. 인간의 삶도 탄생에서 어린 시절, 성인, 노년 그리고 죽음을 주기로 한다. [...]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이것이 바로 원의 움직임이다. 전통적으로 라코타인들이 직선적 사고에 능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 라코타인들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바로 라코타 정신이다.⁷⁷⁾

원은 시작도 끝도 없다. 원 위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른 모든 존재들과 평등하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인디언은 순환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76) 조셉 M. 마셀3세.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 김소향 역, 문학의숲, 2010, 145쪽.

77) 위의 책, 142-144쪽.

3. 자연에 대한 생태주의적 관점

레오폴드(Aldo Leopold)는 『모래땅의 사계, *A Sand County Almanac*』에서 흙, 물, 식물 그리고 동물 등을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자연의 윤리와 인간의 윤리적인 태도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고, 인간의 위치는 더 이상 대지 공동체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오폴드는 인간중심 환경윤리가 아니라 자연 중심 환경윤리에 근거하여 인디언들의 자연관을 이해한다.⁷⁸⁾

인디언은 세계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그물로 파악했고, 생명체들 역시 생명의 그물을 짜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도 생명의 그물의 한 매듭에 불과하며, 모든 존재는 위대한 영의 산물이고, 그것들은 원처럼 순환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체는 형제자매의 관계이고, 배려와 보살핌의 대상이었고, 대지는 나를 낳은 어머니이기에 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갈취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인디언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는 삶의 ‘테’(Hoop)이며 ‘윤회’(Wheel)이며 ‘순환’(Circle)이다. 이것은 모든 사물은 동등한 그리고 불가결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로 보는 세계관이다. 여기서 실재는 인간 정신이나 존재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알아가는 과정 자체의 필요 불가결한 한 측면이 된다. 인디언들은 동물들을 형제로 여기고 또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긴다. 모든 형제들이 자연의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함께 있는 존재라면 인디언 역시 자연에 포함되는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인디언의 사고방식은 위와 아래가 없는 반위계적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인디언들의 세계관의 핵심이며 그들의 생활철학이었다.⁷⁹⁾

세계를 그물과 원으로 파악하는 순간 모든 존재는 때려야 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단순한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행동 하나 하나가 서로 영향을

78) 안건훈, 「아메리카 인디언의 환경윤리」, 『철학』 57집, 한국철학회, 1998, 339쪽.

79) 워드 처칠, 『그들이 온 이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272쪽.

주고받는다 고 생각하는 인디언은 사냥감을 존중해서 다루고, 생명체뿐만 아니라 돌, 물, 산 등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몽테뉴(M. de Montaigne)는 그러한 아마존 원주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탄한 적이 있다.

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통치자 또는 정치적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표현도 없으며 누구에게 매여 살거나 가난과 부자의 차이도 없이 평화롭게 산다. 벌거벗고 살며 농사일도 금속도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은 풍부한 숲이 생활에 넘치도록 공급해 주기 때문에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들은 자연이 넘치도록 준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 그 이상의 것은 과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⁸⁰⁾

인디언은 자연은 창조주가 보내준 선물로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극도로 아끼고 자연에 적응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행복했다. 그들은 생명의 그물을 흔들고 파괴하는 것은 세계를 흔들고 파괴하는 행위이고,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생각했다. 인디언은 땅을 파헤치거나 강물을 더럽히는 것은 곧 어머니의 몸을 손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 한다.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져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른다. 계속해서 잠자리를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 당신들은 황무지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사라져 갈 때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이 땅과 홍인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해 준 하느님에 의해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⁸¹⁾

백인에게 대지는 야생 동물과 야만인이 때 지어 물려다니는 곳이었다. 총을 든 개척자들은 자연을 오히려 무서운 것이라고 여겼지만 활과 창을 사용하는 인디언은 자연을 두려움 없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윌리스(A. R. Wallace)는 곤충을 채집하러 인디언 부락에 들어갔다가 설레었던 감정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80)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425쪽에서 재인용.

81) 김종철 옮김, 『시애틀 추장의 연설-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녹색평론』 창간호, 녹색평론사, 1991년 11-12월호, 63-64쪽.

티끌 한 점 오염되지 않은 야만인들! 자연 그대로의 인간과 처음으로 만나서 함께 생활한다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그들은 백인들의 생활방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 자신의 일이나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자급자족하는 숲 속의 은자처럼 한가로웠고 [...]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를 전혀 거들보지도 않았다. 숲 속의 야생동물처럼, 그들은 모든 면에서 원시 그대로였고 자급자족적이었다. 문명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에도 수많은 세월을 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⁸²⁾

인디언은 자연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과 경험에서 유용한 지식을 얻어 활용했다. 그들은 마사지, 한증목욕, 진흙목욕, 온천욕, 일광욕, 삼림욕 그리고 신앙요법 등의 방법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그들은 신비한 효능을 가진 식물, 즉 코카인, 키니네, 카스카라, 토근, 토루, 콜라 등을 찾아내 치료제로 사용했다.⁸³⁾ 따라서 그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인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이다.

인디언은 자연, 인간, 위대한 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 그것들과 상호의존적이고 상부상조할 때 그들의 생활이 풍요로웠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배하는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파괴하여 왔다.

82) 제이콥 브로노프스키, 『인간 등정의 발자취』, 김은국·김현숙 역, 바다출판사, 2009, 332쪽.

83)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93쪽.

V. 인디언의 대아적(大我的) 사회관

1. 형제적 평화관

오늘날 지구는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규모와 그 잔인성을 익히 알고 있다. 수만의 핵무기가 비축되어 있고 군사장비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몇몇 강대국이 핵무기를 대량 보유함으로써 세계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디언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휴지기와 같은 소극적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깊다.

모든 존재는 생명의 그물로 이어져 있고, 한 생명의 죽음은 다른 생명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인디언의 순환적 자연관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족들 사이에도 평등하다는 평등적 사회관으로 연결된다. 인디언은 소박한 삶을 갈구하고 상하계급과 지배가 없는 평화적인 사회를 지향하였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강인하게 단련하였고, 자신들을 창조한 위대한 영과의 교감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는 영적 훈련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소박하고 단출한 삶을 살았고, 물질을 소유하거나 축적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먼 미래세대까지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점에서 인디언들은 ‘대아(大我, Self)’적인 삶을 살았다. 여기서 대아(大我, Self)란 에고(ego) 내지는 개인(individuals)을 자아로 파악하는 소아(小我, self)가 아니라, ‘나’는 시공간적으로 보다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된 자아를 말한다.⁸⁴⁾

캐나다의 인디언 역사가인 윌러스(P. A. W. Wallace)는 『평화의 순수한 근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84) B. Devall & G. Sessions,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2007, 76쪽 참조.

이로쿼이족 인디언은 모든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평화란 모든 사람이 관습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강제할 힘이 있을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 그 힘은 단순히 평화를 해치는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평화가 훼손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법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 그들에게 평화는 곧 법이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같은 단어를 썼다. 평화(또는 법)은 행위의 정당함, 개인이나 국가 간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였다. [...] 그들에게 평화는 지혜와 품위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었다.⁸⁵⁾

인디언 사회에도 분쟁은 있었다. 하지만 인디언 라코타족 언어에는 ‘싸움’이라는 뜻의 ‘위카키자피’와 ‘전투’라는 뜻의 ‘위코키제’라는 단어가 있어도 ‘전쟁’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갖는 단어는 없다.⁸⁶⁾ 전사는 인디언의 일생의 의무이다. 유목의 수렵생활에서 남성은 제공자인 동시에 보호자가 된다. 즉 사냥꾼이자 전사이다. 사냥꾼의 역할은 음식과 안식처와 옷감을 준비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사의 역할은 위급한 상황에서 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디언의 전투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성을 과시하는 것이 전투의 목적이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용감성을 과시하자면 상대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⁸⁷⁾ 인디언에게 전투는 젊은이들이 담력을 시험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담배를 피우고 타협부터 한다. 그들의 담판은 끈질기기로 유명해서 하루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디언은 소박한 삶을 갈구하고 상하계급과 지배가 없는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과부를 먼저 돌보는 사회 윤리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움과 즐거움 속에서 자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들은 부족민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선출된 추장에게 부족의 장로가 당부

85)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125-128쪽에서 재인용.

86) 조셉 M. 마셜3세,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 김소향 역, 문학의숲, 2010, 92쪽.

87) 드 처칠, 『그들이 온 이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374쪽.

하는 대목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옷을 입어라, 내 아들이야. 그리고 큰 심장을 지닌 사내가 되어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절대로 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내가 되어라. 가난한 자들과 홀로 된 아녀자들과 부모 잃은 아이들과 힘없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라. 다른 이들의 부덕은 생각하지 말며 그들이 너희에게 저지른 악행도 보지 말거라. 노여움에 굴복하지 말거라. 우리는 너를 고결한 인간으로 선택했다. 이 모든 의무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좋은 얼굴로 행하여라. 적이 시험하러 덤비거든 용감하게 나아가라. 비겁한 심장이 되어 좋은 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보다 벌거벗은 전사로 죽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⁸⁸⁾

그리고 인디언은 자신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위대한 영으로부터 나온 형제적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디언에게 위대한 영은 보이지 않는 자연이었고, 자연은 눈에 보이는 위대한 영이었다. 그리고 자연 가운데에서도 특히 만물을 키우는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은 대지를 절대적 존재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땅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살을 파헤치는 짓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는 다음의 시애틀 추장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 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⁸⁹⁾

더 나아가서 인디언들은 동물들도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보호를 받을 권리, 삶을 누릴 권리, 번식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인간에게 기댈 권리가 동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동물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으며, 음식이나 의복에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는 함께 삶을 공유했다.⁹⁰⁾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은 인간이 자연을 잘 돌 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88)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머니스트, 2003, 22쪽.

89) 김종철 옮김, 「시애틀 추장의 연설-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녹색평론』 창간호, 녹색평론사, 1991년 11-12월호, 60쪽.

90)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335쪽 참조.

러한 인디언의 형제적 평화관을 인디언 추장이 될 사람에게 푸에블로족 구성원들이 낭송했던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는 그대 보호 아래 우리의 땅과 부족 사람들을 맡긴다. 그대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또는 그대 자신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연설 솜씨가 부족할지라도, 그대는 자신의 능력을 다해 공정하게 그대의 부족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앙에 상관없이 우리 부족과 하나가 될 것이며, 그대는 자신의 부족에게 하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보호와 권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대는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것이다.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족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을 써서 바로 잡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동료 인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네 번에 걸쳐 그에게 평화롭고 지성적인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네 번이나 걸쳐 '싫다'고 대답한다면, 그대는 그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도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넉 대까지 때릴 수 있다.⁹¹⁾

그들은 같은 부족뿐만이 아니라 피부와 신앙이 다른 부족까지, 인간들뿐만 아니라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미물까지도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그러한 생각은 교육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 전인적 교육관

인디언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강인하게 단련하였고, 자신들을 창조한 위대한 영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훈련을 필요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강인함을 기르도록 가르친다. 정신과 육체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오히예사(Ohiyes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몸은 유연하고, 균형 잡히고, 우아하면서 강인한 육체의 완벽함을 가질 때 도덕

91)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255쪽 재인용.

적 삶의 기초를 다지는 셈이다. 어떤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영혼의 건전한 육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감각적 쾌락에의 탐닉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진리에 입각해 인디언은 육체적 훈련에 관한 엄격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는 사회적, 도덕적 강령으로 그들 삶의 규범이 되었다.⁹²⁾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은 단식을 하고 강도 높은 달리기와 수영 그리고 증기욕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시켰다. 그들은 자연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 이상적인 육체를 가질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수한 종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수련의 목적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캐나다에 살던 라피타우 신부는 인디언 라우어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했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도 영웅적 인내심을 보여 주었고 불행이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 인디언에게 용기란 절대적 자기 절제였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알고 욕망이나 번민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⁹³⁾

인디언 사회에서 노인은 아이들의 선생이다. 체로키족 노인은 아이에게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 이치에 흥미를 끌도록 슬기롭게 가르친다. 그는 손자에게 내면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얘야,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그중 한 마리는 못된 늑대지. 그것은 분노, 질투, 후회, 탐욕, 거만, 무지,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 불명예, 우월감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경건, 겸손, 친절, 공감, 너그러움, 진실, 동정, 믿음이지.” 손자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⁹⁴⁾

노인은 이러한 사실을 늘 아이에게 가르친다. 소년은 사람이 되는 철학, 사냥꾼이

92)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101쪽에서 재인용.

93) 위의 책, 111-113쪽에서 재인용.

94)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108쪽.

되는 철학, 전사가 되는 철학을 배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인디언의 교육은 오늘날 청소년교육과는 매우 다르다. 현대교육은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강당에서 혹은 실험실에서 조직적인 경쟁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데 반하여, 인디언 아이들은 자연에 책을 펼쳐 놓고 때로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현장에서 전체이면서 부분으로써 더 큰 전체를 이루는 각각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공부한다.

인디언은 누구나 자연 속에 자기만의 비밀장소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자기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꾸려가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마음이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간사한 꾀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환생하게 된다고 믿는 인디언은 몸의 영혼은 몸과 함께 죽지만 영혼의 마음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작아진 영혼으로 태어나게 된다. 작아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어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된다. 영혼의 마음이 작아지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밀 장소에서 영혼의 마음을 키우고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한다.⁹⁵⁾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 학살이 전염병처럼 퍼지던 시절 안네 프랑크(Anne Frank)에게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들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비밀 장소였다. 안네는 자신의 일기장을 인격화시켜 ‘키티’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털어 놓음으로써 성숙해 간다. 일기에는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인디언들은 자연 속에서 자기만의 비밀장소를 정해놓고 영혼의 마음을 키웠던 것이다.

95)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조경숙 옮김, 아람드림미디어, 2004, 101쪽.

3. 사회에 대한 평등지향적 관점

인디언들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vital needs)만을 소비하는 소박하고 단출한 삶을 살았고, 물질을 소유하거나 축적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평등한 참여와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적 서열화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현세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7세대의 미래까지도 배려하였다.⁹⁶⁾

유티족 속담에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없는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념이었다. 인디언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없는 공동체로서 약자나 환자나 나이든 사람은 부족의 보호를 받는다. 머독(G. P. Murdoch) 교수는 인디언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에게서 사회주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무엇보다 분배의 방식에 있다. 인디언은 재화의 자유로운 교환이 아닌 잉여 생산물을 주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 사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법과 질서를 통해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고 빈곤과 비자발적 실업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탐욕은 애초에 설 자리가 없었다. 그들에게 화폐제도가 없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소유에 대한 저항감을 전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쟁이나 교역을 통해 어떤 사람이 많은 말이나 담요 또는 다른 재산을 얻게 되면, 그는 축제나 파티를 열어 그에게 남는 것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회의 관례였다.⁹⁷⁾

인디언은 사냥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부터 나누어주고 남은 것을 가져간다. 인디언 사회에서 병들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거지나

96) 박미화, 김기대, 「생태주의 환경관의 재구성을 통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분석과 환경교육적 시사점」, 『환경교육』 22권 3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09, 60쪽 참조.

97)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66쪽 재인용.

부랑자가 없었다. 가까운 친족이 없는 아이들은 부족민이 기쁜 마음으로 맡아 키웠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낳은 아이일지라도 양부가 되어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이 이동할 때는 가장이 없는 집의 천막부터 먼저 세워주었다.⁹⁸⁾ 한마디로 그들은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리고 인디언 사회는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우월성도 허용하지 않았고, 어떤 형태의 노예나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탐험가 롬다르세(L. A. de Lom d'Arce)는 “인디언은 우리 유럽인을 비참한 영혼이고,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의견을 말할 가치도 없는 노예인생이라고 한다.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에게 복종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인디언들 각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인이며, 인간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서로 간에 차별이나 우월성은 없다고 믿는다”⁹⁹⁾고 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한 세기 전에 몽테뉴는 “프랑스를 방문한 인디언은 어떤 사람들은 온갖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한편 또 다른 절반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야윈 채 그들의 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고, 그러한 것을 목인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다”¹⁰⁰⁾고 했다. 인디언은 위대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억압정책을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유럽 못지않은 미국 식민지 사회는 인디언 사회보다는 훨씬 강압적이고 계급 중심적 사회였다. 그러기 때문에 신대륙 개척자 로저스(R. Rogers)는 의심하는 영국 청중들에게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백인이든 인디언이든, 추장이든 노예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¹⁰¹⁾고 외쳤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B. Franklin)은 “인디언 아이를 입양해 우리말과 풍습을 가르쳐 놓아도 한번 친척을 만나러 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었다.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 어렸을 때 인디언에게 포로로 잡혀 자란 아이들은 몸값을 치르고 함께 살자고 온갖 말로 달래도 얼마 안 가 우리들 삶의 방식에 진저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기회

98)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먼스트, 2003, 20쪽.

99)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484쪽 재인용.

100) 같은 곳.

101) 위의 책, 483쪽 재인용.

를 보아 숲으로 도망치면, 그때는 교화할 방법이 없다.”¹⁰²⁾고 말하고 있다. 정복하기 보다는 배려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인디언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지게 되면, 정복과 경쟁을 일삼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인디언 사회에서 남녀가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양성은 서로 별개의 사회적 영역을 이루었고,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여자는 전투사령관이 될 수 없었고 남자는 씨족장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인디언 여성의 위치는 19세기 유럽 여성보다 나은 것이어서 미국의 여성운동가인 모트(L. Mott), 스탠턴(E. C. Stanton), 게이지(M. J. Gage) 등은 인디언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¹⁰³⁾ 그리 본다면 인류 역사가 반드시 진보의 역사라고만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를 전해주는 사례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¹⁰⁴⁾로 널리 알려진 인도 북부의 라다크 사회와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의 경우와 같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인디언 사회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102) 위의 책, 485쪽 재인용.

103) 위의 책, 479쪽.

104)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1999.

VI. 인디언 생태철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1. 전근대성에 대한 논의

현대인은 신화의 벽을 허물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지구의 자원은 머지않아 고갈될 형편이고 이런 추세로 인구가 팽창한다면 지구 하나로는 부족하다. 현대 과학기술도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류의 뒀안길에서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논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인디언의 생태사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사고에 입각한 인디언의 생태사상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비판, 인디언들의 자연적 삶은 생태주의에 입각한 삶이라기보다는 결국 자연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그들의 살아남으려는 이기심의 소산이 아니냐는 비판, 오늘날 과학기술문명에 길들여져 있는 수십억 인구가 인디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는 비판 등이 있을 수 있다.

인디언은 '위대한 영'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전형적인 신화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만물 속에 '위대한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비적 체험을 통해 만물은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인디언의 믿음은 고대 물활론(animism)의 연장이다. 따라서 미개한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현대의 문제를 풀겠다는 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보는 이에 따라서 인디언의 사고가 옳도 폐기된 게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간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논하는 이유는 자연을 기계론적으로 파악하고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개발하는 데서 나온 병폐들을 반성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속좁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근대주의(modernism)를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인간끼리 상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꿈꾸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사회로 나아가려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이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적 합리주의’가 오늘날 환경과 생태 위기를 불러왔고, 그래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환경과 생태계를 간과해온 효용성, 생산성, 합리성 등의 평가 기준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합리주의에서 간과해왔던 생태적 요소들을 감안한 생태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생태적 합리주의’란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므로 합리성을 평가할 때는 생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평가하며, 합리적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확장된 합리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자연의 일부인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요인까지를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⁵⁾

따라서 전근대적인 사고로 근대주의(modernism)를 넘어서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프라(F. Capra)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The Tao of Physic*』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The Turning Point*』에서 서구의 근대주의(modernism)를 넘어 탈근대주의(postmodernism)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대의 동양사상을 차용한 바 있다.

카프라가 동양적 사고를 차용하는 이유는 서구의 근대주의(modernism)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가 근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탈근대주의(postmodernism)로 나아가려는 것이지 전근대주의(premodernism)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 카프라가 동양적 사고, 즉 주역, 도교, 불교, 선(禪) 등을 ‘신비주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이원론에 바탕을 둔 속좁은 합리주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비주의’라 배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카프라가 말하는 신비주의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논리와 속좁은 합리주의를 넘어서서 폭넓은 합리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다.¹⁰⁶⁾

인디언의 삶과 사상에서 우리가 취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푸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줄 생태적 지혜이다. 박희병은 『한국의 생태사상』에서 근대 이전의

105) 윤용택,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사상문화』 제11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1, 87-88쪽.

106) 윤용택,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교화 사이」, 계간 『과학사상』 제50호, 범양사, 2005, 83-84쪽.

사상 속에 깃들여 있는 생태적 관점이 비합리적인 사유의 소치이거나 현실적 사유 능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생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근대 이후 우리가 망각해 가던,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파악하는 관점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적 합리주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생태적 관점은 신비주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협소하거나 편협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人)과 사물(物)의 근원적 평등에 대한 주장은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 할 ‘생태적 지혜’의 차원에 속한다. 이런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 같은 자연내 존재로서 물아(物我)의 근원적 동일성에 대한 주장은 ‘진실’이고 ‘합리’일 수 있을 터이다. 한국사상의 전통을 일별하면서 살핀 이런 생태적 지혜는 우리가 장차 협소한 과학적 합리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면서 ‘생태적 합리성’을 모색하거나 원용하는 데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태적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근대적 합리성의 기저에 놓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을 ‘열린 이성’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¹⁰⁷⁾

전근대적인 인디언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태적 지혜가 현대인이 과학기술 문명을 토대로 대량생산과 소비로 살아가는 오늘의 생활환경개선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세계를 궁극적인 구성단위로 환원시켜 분석하고, 선형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근대적 의미에서는 환원주의적 분석적인 것이 합리적이지만, 복잡한 그물구조의 자연을 관리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 속의 각 요소들의 그물망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과학기술문명이 이대로 진행되고 인간 정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자연의 파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셀이 인디언에게 당신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하고 물었을 때 “인디언은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인디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107)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34-35쪽.

지구는 벼룩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을 흔드는 개처럼 크게 뒤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¹⁰⁸⁾고 대답했다.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 속에는 눈앞의 개발이익만을 쫓는 지배적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 있다. 따라서 삼라만상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믿고 산천초목을 경외(敬畏)하는 인디언 사상을 단순히 전근대적이라고 폄훼하기보다는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생태적 합리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자연적 삶에 대한 논의

인디언을 ‘20세기 생태주의의 개척자’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생태학적 인디언’이란 한낱 허구적인 신화이거나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디언의 생태적 삶이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윤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허치슨(W. H. Hutchinson)은 인디언이 자연에 존경과 경외심을 보였던 것은 자연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초자연적 힘을 믿고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이라고 한다. 인디언이 유럽인에 비해서 의식과 제의가 유난히 많고 금기가 발달한 것도 특별히 영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결국 자연을 달래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보면 인디언은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라는 것이다.¹⁰⁹⁾ 그리고 마틴(C. Martin) 역시 인디언 자연관은 도덕과 윤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디언과 자연은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보다 자연의 폭력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계약에 의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인디언은 자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에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보복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디언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존경하는 마음이 나타났으며 그 기초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108) 라셀 카르티에 외, 『인디언과 함께 걷기』, 길잡이늬대, 문학의숲, 2010, 31쪽.

109)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40쪽.

인디언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나왔으므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¹⁰⁾

이에 대해서 캘리코트(J. B. Callicott)는 인류란 애정, 동정, 관심, 존경, 경외와 같은 윤리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디언 사회에서 동물들을 확대해서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동물을 존중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자연에 대한 인디언의 태도는 도덕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다.¹¹¹⁾ 인디언의 대지윤리는 유럽 문화에서 인도주의적인 종교윤리처럼 인류가 지닌 고귀한 감정도, 외부에 의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기심도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대한 인디언의 외경심을 폄하할 수는 없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영성마저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캘리코트는 이러한 예를 기독교 윤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도 가운데서 이기심보다 도덕감을 더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존경을 갖고 처신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나타난다.”¹¹²⁾ 마찬가지로 인디언의 환경윤리에도 도덕심과 이기심이 함께 섞여 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 난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을 잘 보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인들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많은 협약과 협정을 맺으면서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려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서 그것을 현대인들의 실용주의나 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디언의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자연에 대

110) 안건훈, 『아메리카 인디언의 환경윤리』, 『철학』 57집, 한국철학회, 1998, 338쪽.

111) 위의 논문, 340쪽 참조.

112) 같은 곳.

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도 통한다.

크레치(S. Kretch)는 인디언이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백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인디언은 어떤 민족이나 종족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디언이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디언을 비인간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¹¹³⁾

한편 인디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용을 하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최대한으로 갈취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맥족 추장의 말에서 현대인의 문화와 인디언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늠할 수 있다.

땅을 파서 돌을 파내는 것은 내 어머니의 피부를 벗기고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후에 누구의 가슴에 안겨 쉴 수 있으며 누구의 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인디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족과 함께 이곳에서 오래도록 평화롭게 머물기를 바랄 뿐이다.¹¹⁴⁾

인디언들 역시 자연을 지배했고 문화를 가졌다. 하지만 인디언 문화는 당시의 유럽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화와도 다르다. 그들 역시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한 문화인이었다. 인디언은 짐승을 잡고 식물을 채취하되 최소한의 짐승과 식물을 채취하고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며 존경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오늘날처럼 먹거리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냥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113) 김옥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40쪽.

114)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7쪽.

3. 접목가능성에 대한 논의

1942년 콜럼버스가 상륙하기 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기체적 세계관, 순환적 자연관, 대아적 사회관을 가지고 살았다. 콜럼버스가 카리브 해안에 표류하여 상륙하던 날 북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총인구는 1500만여 명에 달했고, 인구 4만의 카오키아(오늘날 일리노이주 소재)의 도심지 같은 대도시들, 고도로 성장한 건축, 토목개념, 현대 생태과학에 맞먹는 지식에 구현된 영적 전통, 약물학과 전인의학(holistic medicine)에 관한 지식을 가졌으며 정치, 교역, 외교체제 등을 갖추고 실현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전통경제는 일차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하고 되는 식물성 식료의 절반이 훨씬 넘는 작물(옥수수, 감자, 토마토, 고추 등)을 만들어낸 친환경적 영농절차에 바탕을 둔 농업이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룩한 토착민 사회는 매우 평등하게 조직되어 부동산은 집단 소유였고 모계중심사회가 기본이었다.¹¹⁵⁾

하지만 오늘날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보호구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수공예품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고, 중남아메리카 인디언은 그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채 하층민으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다. 만일 아메리카가 유럽인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세계의 과학기술문명과 자본주의체제의 선두를 걷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200여 년 전 인디언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인디언 사회가 유럽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디언의 생태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크레치(S. Kretch)는 인디언을 ‘생태학적 인디언’이란 한낱 허구적인 신화이거나 신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허치슨(W. H. Hutchinson)과 마틴(C. Martin)은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보인 것은 자연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초자연적 힘이 두려워 경외심을 보였기 때문에 실용주의자라는 비판과, 생존을 위한 계약에 의한 의무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캘리코트(J. B. Callicott)는 인디언의 환경윤리

115) 워드 처칠, 『그들이 온 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34쪽.

는 도덕심과 이기심이 함께 있다고 한다.

현대인은 더 이상 신화를 믿지 않으며, 공동체적 삶을 희구하지 않으며,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먼 미래세대를 위해서 과학기술문명에 길들여진 3억의 미국인들에게 18세기 인디언의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은 던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인류가 탐욕을 버리고 영원히 단혀버린 인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같다. 현대인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연은 동화에 나오는 머나먼 곳의 이야기인 듯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다. 그들은 식탁에 오르는 음식재료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정원의 나무와 잔디는 스스로 생명을 틔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의 손에 의해 생겨나고 다듬어지는 조형물로 생각한다. 현대인들에게 생명은 오로지 인간생명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 생명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생명종들이 멸종위기로 치닫고 있다.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시애틀 추장의 충고의 말을 도외시하고 있다.

현재 지구 인구는 70억을 넘어섰고,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한 몫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자동차가 실용화된 것은 불과 백년이고, 환경오염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 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기위축을 이유로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대도시에 몰려 살아가는 수십억 현대인들이 인디언처럼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변이 없고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에 펼쳐진 숲과 새와 들짐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의 시간을 떠나 현대라는 시간 속에 고립된 존재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디언의 자연친화적 정신은 현대인의 풍요로운 생활로 망각한 자연에 대한 정서를 불러넣어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인디언의 정신적 문화와 현대인의 물질적 문명을 접목시킬 필요

는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인이 비합리적으로 보는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 속에 개발이익만을 쫓는 지배적 합리주의에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연에 존경과 경외심을 보였던 것은 자연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초자연적 힘을 믿고 살아남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날 세계인들이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협약과 협정을 맺으면서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도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대가로 환경오염과 생태계는 악화되고 있다. 환경수용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과학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인들은 지나온 과거는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 문명에서 벗어나 과거 정신적 문화가 번성했던 세계로 회귀한다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지혜를 버리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현대 물질문명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 경쟁하는 풍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폭력을 가하고 인간은 보다 치열한 개인주의로 치닫다 보면 인간 이외 다른 생명을 돌보기는커녕 인간 생명의 가치마저 떨어질 게 분명하다. 현대 물질문명과 이질적인 인디언 문화를 결합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리스문화와 오리엔트문화를 결합시킨 헬레니즘문화가 있었고, 르네상스를 통해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경우에는 도태된다는 것은 자연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많은 현대인이 과학기술문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인디언의 생태문화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현대문명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적어도 현대인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VII. 결 론

많은 현대인들에게 인디언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디언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내디뎠던 사람들과 생태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인디언들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백성이었다. 인디언에 대한 최초의 인류학 보고서를 쓴 라스 카사스(B. de Las Casas)는 인디언은 지상낙원에 서 암소들처럼 온화하게 살던 꾸밈없는 존재들이었다고 평했고, 휴이트(E. L. Hewett)는 인디언이 단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 미학적, 윤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인디언은 정복자들보다 앞서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우털(S. L. Udall)이 인디언을 20세기 생태주의 개척자라고 지칭한 이후 환경운동가들은 인디언을 ‘최초의 생태주의자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디언의 삶과 문화 속에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위기와 공동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인디언은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풍습, 개척자, 탐험가, 선교사, 모피 수집가들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들, 인디언 후예의 기록들, 인디언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기록들, 인디언 별망사 등을 바탕으로 인디언의 생태사상을 살펴보았다.

인디언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랐다. II장에서는 인디언의 이미지를 ‘야만인으로서 인디언’, ‘문화인으로서 인디언’, ‘생태주의자로서 인디언’ 등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야만인으로서 인디언’은 그들이 우상 숭배, 희생제의, 극악무도한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야만인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인으로서 인디언’은 그들이 단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 미학적, 윤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유럽과는 또 다른 유형의 문화인이라는 입장이다. ‘생태주의자로서 인디언’은 그들이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뿐만 아니라 공

기와 물 같은 자연도 살아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교감한다는 유기체적 사고를 하는 생태주의자라는 입장이다.

Ⅲ장에서는 ‘위대한 영(The Great Spirit)’을 믿으며 살았던 인디언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이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으며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과 예민하게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관찰하면 초자연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믿고 관조와 명상을 통해서 초자연적 신비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우주의 근본 원리는 전일론적 세계관을 믿었다. 오늘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디언의 그러한 세계관을 차용하여 환경교육에서 자연의 신성성과 유기적 관계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는 인디언의 순환적인 자연관을 살펴보았다. 인디언들은 모든 존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상호의존적이며,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그물의 한 가닥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화합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은 삶과 죽음이 서로 이어지고 순환하는 먹이사슬을 자연의 순리로 보면서, 생명체뿐만 아니라 산, 물, 돌 등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생태적 자연관을 가지고 살았다. 인디언들은 대지를 파헤치거나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하였는데, 그러한 생각은 대지윤리와 심층생태주의를 주장하는 현대 생태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V장에서는 인디언의 대아적(大我的) 사회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대아(大我, Self)’라 함은 개인으로서 소아(小我, self)가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보다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었다는 감정을 가진 자아이다. 인디언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로 보면서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과부를 먼저 돌보는 사회윤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전인적 교육을 통해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서로 나누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Ⅵ장에서는 인디언의 생태적 삶과 문화에 비판적인 견해들을 검토하였다. 최첨단 과학기술문명의 시대에 전근대적인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가 유효하겠는가라는 비판도 있지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 속에 개발이익만을 쫓는 지

배적 합리주의에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 있다. 최근에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이 최근에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하듯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인디언 삶과 문화도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됨으로써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과학기술은 인구의 도시집중, 자원고갈, 생태계교란, 환경오염, 기상이변 등을 가져오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환경문제를 푸는데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과거의 생태문화에서 그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생태적 삶을 살았던 인디언의 생태적 정신문화와 현대인의 물질문명을 접목시킬 방안은 없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현대 물질문명으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 속에는 현대의 생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다. 오늘날 세계가 환경과 관련된 협약과 협정을 맺는 것도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디언의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대인의 물질문명과 이질적인 인디언의 생태적 문화를 접목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낡은 생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라면 다방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디언의 생태사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나스디지, 『나의 피는 꿈속을 가로지르는 강물과 같다』, 조병준 옮김, 푸른숲, 2004.
- 돈 미겔 루이스, 『네 가지 약속』, 유향란 옮김, 김영사, 2012.
- 디 브라운,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최준석 옮김, 한겨레출판, 2011.
- 라셀 카르티에 외, 『인디언과 함께 걷기』, 길잡이늑대 옮김, 문학의숲, 2010.
- 레이젤 카슨, 『침묵의 봄』, 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 2011.
- 로럴드 라이트,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 안병국 옮김, 이론과실천, 2012.
- 류시화 편,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 김영사, 2009.
- 마리 산도스, 『크레이지 호스』, 김이숙 옮김, 휴머니스트, 2003.
- 마츠키 타다시, 『힘겨운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정택상 옮김, 정한PNP, 2003.
- 몬테 릴, 『인디언 최후의 부족』, 정희성 옮김, 아카이브, 2012.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사이토 도시야, 오하라 미치요,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홍성민 옮김, 공명, 2012
- 슈바이처, 『나의 생애와 사상』,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1999.
-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김석목 역, 슈바이처 전집3, 경지사, 1965.
- 슈바이처, 『문화의 몰락과 재건』, 지명관 역, 슈바이처 전집3, 경지사, 1965.
- 신명섭 엮고 옮김, 『강은 거룩한 기억이 흐른다』, 고인돌, 2010.
- 알도 레오폴드, 『모래땅의 사계』, 윤여창·이상원 옮김, 푸른숲, 1999.
- 엘프리드 W. 크로스비, 『콜럼부스가 바꾼 세계』, 김기운 옮김, 지식의숲, 2006.
- 어니스트 톰슨 시튼 외,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정영서 옮김, 책과삶, 2013.
- 에드워드 커티스, 『북아메리카 인디언』, 이주영 옮김, 눈빛출판사, 2011.
- 엔리케 두셀, 『타자의 은폐』, 박병규 역, 그린비출판사, 2011.
- 워드 처칠, 『그들이 온 이후』, 황건 옮김, 당대, 2010.
- 위베르 망시옹 외,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권지현 옮김, 흐름출판, 2012.

- 이문구, 『우리 동네』, 솔출판사, 1996.
- 제이콥 브로노프스키, 『인간 등정의 발자취』, 김은국·김현숙 역, 바다출판사, 2009.
- 조셉 M. 마셀3세,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 김소향 역, 문학의숲, 2010.
- 찰스 만, 『인디언』, 전지나 옮김, 오래된미래, 2005.
- 팔리 모앗, 『잊혀진 미래』, 장석봉 옮김, 달팽이출판, 2009.
- 포리스트 카터,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조경숙 옮김, 아릅드리미디어, 2004.
- 프레드릭 E. 호시,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유시주 옮김, 영림카디널, 2000.
- 프리츠프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 외 옮김, 범양사, 1979.
- 프리츠프 카프라, 『현대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성범 외 옮김, 범양사, 1985.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1999.
- 햄튼 사이즈, 『피와 천둥의 시대』, 홍한별 옮김, 갈라파고스, 2009.
- J. R. 데자르맹,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 T .C. 맥루한, 『대지와 더불어 : 인디언의 삶의 자화상』, 김은국 역, 범양사, 1983.
- W. C. 밴더워스, 『인디언 추장 연설문』, 김문호 역, 그물코, 2004.
-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Gibbs Smith, Publisher, Salt Lake City, 2007.
- F. Capra, *The Hidden Connections*, New York, Doubleday, 2002.

논문

- 강운복, 「환경철학에서 본 장회익의 온생명론」, 제주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육동,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태의식」, 『미국학논집』 35·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3 봄.
- 김종철 옮김, 「시애틀 추장의 연설-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녹색평론』 창간호, 녹색평론사, 1991년 11-12월호.
- 김종철,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녹색평론선집1』, 녹색평론사, 2005.
- 김현돈, 「느린 것이 아름답다」,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2010.

- 김화진, 「슈바이처의 생명외경 윤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미화.김기대, 「생태주의 환경관의 재구성을 통한 북미 원주민의 생태주의 환경관 분석과 환경교육적 시사점」, 『환경교육』 22권 3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09.
- 박창길, 「북미 원주민의 환경사상」, 『민족문화논총』 2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 안건훈, 「아메리카 인디안의 환경윤리」, 『철학』 57집, 한국철학회, 1998.
- 윤용택,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사상문화』 제11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1,
- 윤용택, 「환경철학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제82집, 대한철학회, 2002.
- 윤용택,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교화 사이: 카프라의 과학사상을 중심으로」, 계간 『과학사상』 제50호, 범양사, 2005.
- 제리 맨더, 「나쁜 요술- 테크놀로지의 실패」, 『녹색평론선집1』, 녹색평론사, 2005, 61쪽.
- 홍은선,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국문 요약

오늘날 유럽문명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던 인디언의 삶과 문화에 대해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비치던 인디언이 오늘날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고상한 문화를 지녔다는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던 인디언의 자연관은 오늘날 생태철학에 창의적인 발상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디언의 생태적 삶과 문화는 과학기술문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인디언의 위대한 영에 대한 믿음,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 등은 우리에게 자연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신적이었다. 인디언이 위대한 영에 대한 믿음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으며 영혼이 성숙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인디언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도 경건해질 것이다.

우리는 인디언의 자연관을 보면서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된다. 발전을 거듭하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어딘가 모르게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한 현대인들은 인디언의 자연친화적 삶을 통해서 풍요롭고 아늑한 현실의 고향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인디언들이 볼 때 자연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을 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인도하는 매체였다.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상호의존관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그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는다.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생명체는 그 먹이사슬을 따라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만물은 공평하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은 모두 신성한 원 안에서 동등한 존재적 가치를 지니는 동반자이다.

인디언은 신성한 원의 상징을 통해서 모든 존재는 하나라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 원은 끝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다.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다. 이 진리를 깨닫는 비결은 원을 이해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우리가 자연을 동반자로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파괴된 자연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돌아설 것이고, 우리의 미래세대는 공해 없는 환경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디언의 생태적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다. 우선 '위대한 영'이 모든 만물은 만들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오늘날 환경문제를 풀겠다는 시도에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인디언이 자연에 존경과 경외심을 보였던 것은 자연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초자연적 힘을 믿고 살아남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지구 인구는 70억을 넘어선 과학기술시대에 인디언의 신화적 사고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디언의 생태적 사고 속에는 눈앞의 개발이익만을 쫓는 오늘날 지배적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생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수많은 환경과 관련된 협약과 협정을 맺으면서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도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디언의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혀 이질적인 현대문명과 인디언 문화를 결합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고찰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의 생태적 자연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American Indian Ecological Philosophy

Pak, Hong Bae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oday as modern civilization with its origin rooted in the Europe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the lives and cultures of the American Indians(the Native America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ir harmonious life with Mother Nature, are being reinterpreted. Although having been labeled as uncivilized and barbaric, the American Indians are now recognized to have possessed a highly respectable culture which enlightens us living in the contemporary era. Their view of the nature, living in harmony with it, has become invaluable resources as well as having inspired creative ideas for ecological philosophy. Their nature-friendly lifestyle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on what we have been missing under the modern civ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dians' belief in holy spirits, respect for the nature, and nature-friendly lifestyle will help us to think anew on the true value of nature. Their culture has essentially been spiritual. Their faith in holy spirits has been a source for maturing their spirit, never ceasing to question who they are within nature and what they are striving to pursu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If we pursue spiritual lifestyle as do the American Indians, our lives will be much more reverent.

We will be reminded of the forgotten 'hometown of the mind' by an Indian perspective on nature. Suffering from mental instability in one way or another deriv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people will gain insights on how to lead a bountiful and comfortable life by looking at the nature-friendly lifestyle of the Indians. Indians saw nature as an entity possessing consciousness, communicating with human beings and leading humans to keep the right mindset.

Every creature is part of a web of life relationships, either prey or predator, in which they exist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yet also while competing and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From the view of a food chain, any living organism can be seen as an evil. However, everyone is equal since each creature circulates moving along the food chain. Human beings together with the rest of nature have the same existential values and become partners in this sacred circle.

The American Indians have established their view of the world that all beings are one within this symbolic, holy circle and are to lead a harmonious and balanced life with nature. The circle is endless and has neither tops nor bottoms. No one is higher or lower than the others in the circle. The only way to realize this truth is to comprehend the circle itself. If we start to perceive nature as our partner and live harmoniously together, the damaged nature will be able to heal itself and our next generation can enjoy a future pollution-free environment.

There are critical views, however, on this ecological worldview of the Native Americans. First, some might express doubts about attempt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today with such an outdated idea that the so-called 'holy spirit' created everything including human beings. Second, others might criticize that the respect and awe the American Indians have held toward nature is not because of their acknowledgement of nature's intrinsic value, but because of a selfish desire to survive with the belief in supernatural power. Lastly,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mythical ideas of the American Indians can be accepted in today's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population on earth surpassing seven billion.

However, the eco-friendly mindset of the Native Americans, which may appear rather irrational, could provide positive factors to help eliminate the ecological risks by calling for reflection upon today's dominant rationalism where nothing is sought but the benefits from development. Given that several environment-related agreements and treaties among nations in an effort to conserve nature were enacted due to fear and anxiety that the current trend of exploitation of nature could lead to the self-destruction of mankind, we should not dismiss the respect and awe toward nature of the American Indians as a way of relieving fear and anxiety.

Now is the right time to search for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the endless pursuit of materialism in modern civiliza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mankind. It is never easy to combine modern civilization and American Indian culture, which are totally

heterogeneous. The reason why we are trying to look into the lives and culture of the American Indians is that we dream of the sustainable hum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udy this ecological view on the nature of the American Indians more in depth.